



[뉴스] 1兆 유니콘 쓰카 기업공개 나선다 입찰제한서 발송 02



Economy

코스피	2545.64 (+6.49)	코스닥	851.74 (+12.27)
금리 (미국 3년)	0.950 (-0.010)	환율 (원/달러)	1103.80 (-2.80) (18일)

재계 곧 연말 인사시즌... 올 키워드는 '안정'

주요그룹 총수 세대교체 이어 삼성·SK 등 임원인사 본격화

코로나·美대선 등 불확실성에 변화보다 안정 기조 인사 가능성

연말을 맞아 재계 관심이 '인사'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젊은 피로 수혈 중인 국내 재계에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1·2세대 시대에 이어 3·4세대로의 교체가 가속화된 가운데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는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연말 인사에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올해 코로나19와 미국 대통령 교체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춰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 LG를 시작으로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의 임원 인사가 본격화 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한 계열사 사업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회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고 이달 말 조직 개편과 함께 사장단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올해로 취임 3주년을 맞은 구광모 회장은 올해 그룹 최대 사상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 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회장단 대부분이 유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3분기까지 2조가 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권봉석 LG전자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분사에 따른 인사도 예상된다. LG화학물적분할로 신설되는 'LG에너지솔루션' 신

임 대표이사에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철 부회장이 에너지솔루션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방안도 관심사다.

앞서 LG그룹은 구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과 사업본부장급 11명을 교체하는 등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했다. 과거 LG그룹 인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12월 첫째 주 사장단 인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고(故) 이근희 회장 별세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이슈로 인사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2016년에도 국정농단 재판으로 연말 임원 인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 해인 2017년 5월과 11월에 임원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정기 임원 인사가 해를 넘겨 올해 1월에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안정' 기조에 맞춘 인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호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부문장 부회장, 김현석 가전(CE)부문장 사장, 고동진 무선(IM)부문장 사장 등 대표이사 3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거래소, 3분기 결산실적 분석 코스피 기업 영업익 전분기비 57%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각각 57%,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한국거래소가 18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90곳(제출유예·분할합병·감사의견 비적정·금융업 등 65개사 제외)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03조647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19%(54조657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조4475억원, 당기순이익은 25조6285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각각 57.78%, 81.31% 늘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7.25%, 5.09%로 2.09%포인트, 1.9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000원어치 제품을 팔았을 때 원가와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면 72.5원을 번 셈이다. 다만 여기에 이자비용 등을 빼면 50.9원을 벌었고, 2분기 보다 20.9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계산된다.

10곳 중 7곳 누적 순이익 흑자 자동차·철강 등 실적개선 효과 의약품·음식료품 등 매출 증가 운수창고·종이목재 등은 감소

거래소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이 전 분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이유에 대해 "기저효과와 쇼핑, 자동차, 철강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던 업종들의 실적개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누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1440조57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12조6823억원)보다 4.7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9조424억원, 순이익은 51조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9%, 9.44% 줄었다.

그래도 이익률은 분기를 더할수록 점차 개선됐다. 1분기에 마이너스(-) 31.20%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은 반기 -24.18%, 3분기까지 -6.79%로 나아졌다.

업종별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의약품(15.96%), 음식료품(7.13%) 등 5개 업종 매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운수창고업(-18.62%), 종이목재(-74.23%) 등 12개 업종에선 매출이 감소했다. 순이익에선 음식료품(138.17%), 의약품(100.85%) 등 6개 업종이 늘어났지만 기계(-93.39%), 종이목재(-74.23%) 등 9개 업종은 감소했다.

상장사 72.2%에 해당하는 426곳은 누적 순이익이 흑자를 보였으나 164사(27.8%)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송태희기자 alvin@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연세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참석해 바이오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석 위아텍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문 대통령,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 /뉴시스

삼바 등 'K바이오'에 10조 투자... 9000명 고용 창출

(3년간)

바이오헬스 역량강화 전략

의약품·기기·디지털헬스케어 집중 2023년까지 연평균 20% 생산확대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오는 2023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한다. 생산은 연평균 20% 늘어나고, 약 9300명의 고용창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 3대 분야(의약품·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요 36개사와 벤처캐피탈 5개사에 향후 3년 간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의약품 투자금액이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벤처투자(1조4000억원), 의료기기(5000억원), 헬스케어(1800억원) 순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약품 23.9%, 의료기기 10.0%, 벤처투자 9.2%, 헬스케어 41.7%로 전망됐다.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2023년까지 생산이 연평균 약 20% 늘고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성공해 다른 투자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선순

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2024년부터 개발·공정 인력을 연 2000여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연구개발(R&D)에서 인·허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K-방역 패키지(방역서비스-기기), 병원차(자동차-바이오헬스)와 같은 패키지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100만명의 유전체·임상정보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명처리 표준화 기술을 개발해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높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도(바이오의약품), 원주(의료기기·헬스케어), 오송·대구(바이오헬스 첨단 인프라) 등 주요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은 올해보다 30%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범부처 협력연구에 올해(290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6400억원이 투입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